

“원전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불교생명윤리협 좌담회 참석

“모든 기계와 문명의 산물은 고장 납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에도 해당되는 명제입니다. 원전은 위험 부담이 크고, 반생명적이며, 반환경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김두관 前 경남도지사가 ‘원전 폐기’에 대한 평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 前 도지사는 7월 4일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범용, 박광서)가 개최한 ‘탈핵-에너지정책’ 주제 좌담회에서 “전력 사업체, 정지인, 언론 등 원자력 마피아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고리 원전 1호기 정전사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 같은 원전사고의 위험성은 1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탈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前 도지사는 더 이상의 원전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기존 원전의 사용 연한 준수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확대 △에너지 분산 관리 △에너지 자립 마을 시도별로 확대 등을 역설했다.

다음은 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범용 스님, 박광서(서강대 교수)와 김 前 도지사의 일문일답.

박광서(이하 박): 박원순 서울 시장도 이 좌담회에서 탈핵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김두관 지사도 고리 원전 1호기를 폐쇄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통합당 당론인가?

- 김두관(이하 김): 당론으로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 시장도, 저도 개인적 의견이다. 당에도 원전 수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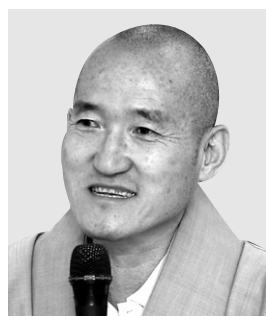
박: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은 핵전문학자다. 핵 확산을 정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

- 김: 새누리당 정책도 관심있게 살피고 있다. 한국의 소비산업 구조는 에너지를 고소비하게 돼 있다.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도 2040년까지 핵발전소를 현재의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위험부담이 높은 원자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도 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범용 스님(이하 범용): 한국을 제외하더라도 중국과 일본 원전의 수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한국만 원전을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 공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김두관 前 경남도지사



범용 스님



박광서 교수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에너지 분산 관리 필요

韓中日 탈핵 연대 고민

NGO 활동 영역 넓여야

- 김: 국가 간 연합 공동체의 형태로 유럽공동체(EU)를 예로 든다. 하지만 한중일의 경우 서로 역사들도 정리가 안된 상황이다. 기본적인 민족 감정이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유기적인 연합은 어렵다. 다만 경제, 생명평화 등 목적이 있는 연합은 가능해 보인다. 실제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몽골 초원에 대규모 태양광,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해 동북아시아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국도 이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가 설립해야 한다. 한중

일 삼국의 에너지 협력 체제는 고민·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범용: 6월 21일에는 대규모 정전 대비 훈련이 있었다. 당시 500만KW(화력발전소 10개, 원전 5개 분량)의 전력이 그 짧은 시간에 비축됐다. 이는 정치지도자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절전, 탈핵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김: 그만큼 많은 전력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들었다. 나는 NGO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이런 부분을 일일이 관장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중앙정부가 보지 못하는 것을 NGO, 시민단체 영역에서 다루워야 한다. 정부는 이런 사업을 보조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리=신승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부대중 칼럼

독일 ‘탈핵’, 하루에 이뤄지지 않았다



정연미

환경경제학 서울대 환경계획 연구소 연구원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에서 기획한 제3차 탈핵기행을 다녀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를 결의한 독일의 탈핵 에너지전환의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었던 이번 탈핵기행은 우리 한국 사회와 나를 돌아보고, 미래는 탈핵 에너지전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참으로 뜻 깊은 시간이었다.

뮌헨, 독일 남부지역 그리고 오스트리아 무레, 귀성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따라 탈핵기행을 떠났다. 먼저 6월 24일에는 군부대를 전환경주거단지로 개발한 아커만보겐 주거단지를 방문했다. 앞으

로 2,200가구의 주민들이 입주할 예정인데, 이 중 320가구의 약 47%에게 태양열을 통해 지역난방을 공급해 난방요금의 20%를 감축하고 있었다. 6,000㎡에 이르는 온수축열조를 언덕형식으로 매립해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 인상적이었다.

6월 25일 독일의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과 자연보호 연맹(분트, BUND)와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은 뮌헨 뉘른부르크 성 맞은 편에 위치해 있는 슈바이스푸르트 재단에서 ‘핵 없는 지구를 위한 공동협력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날 한국과 독일의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원자력발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미래세대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명사회의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국제적 연대가 요청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협약식에 이어진 ‘핵 없는 지구를 위

한 한독 공동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정책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단체간 교류를 강화시킬 있는 방안을 토론했다. 세미나를 통해 독일의 탈핵 운동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탈핵이 독일 사회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탈핵운동이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인식에까지 이르고 있는 독일 시민들을 보면서, 세계 5위 원전대국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원전을 가동하면 전력과 함께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방사능폐기물과 원전 사고의 위험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2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독일 남부지역에서

‘세슘 137’이 여전히 검출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무레, 귀성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현장도 뜻 깊었다. 기업들은 사양산업인 원전산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탈핵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었다. 기업, 정부, 시민들이 함께 탈핵과 에너지전환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한국의 현주소를 다시 짚어보고, 한국 사회가 탈핵의 길을 만들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볼 수 있었다.

탈핵이 결코 먼 미래의 남의 일이 아니며, 지금 당장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에 대한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과 한 사회가 탈핵 에너지전환에 이르는 긴 여정을 생각하면,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탈핵과 에너지전환 문제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한다면 먼 미래는 오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천태종 가족 주말학교에 박수를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다.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는 의미다. 그만큼 가족이 모든 일에 근본이 된다는 뜻이다.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 그 의미가 마음에 와 닿는다. 가족은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족문제는 각자 자신의 생각과 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 먼저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해결하기 쉬워진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족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천태종이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시의 적절한 발상이다. 천태종은 글로벌 문화교류포럼과 함께 7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10회(월1-2회)에 걸쳐 ‘주 5일제

수업을 위한 행복한 가족주말학교’를 개설한다.

행사 장소도 여러 곳이다. 단양과 강강 난지 캠핑장, 구인사, 농촌, 양로원, 명락사 교육관 등이다.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다. △구인사 답사 및 농촌체험 캠프 △양로원 자원봉사 △가족 캠프 △농촌 봉사 △관악산 등반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돕기 연탄 나눔 △김장김치 나누기 등이다. 실내에서의 대화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함께 맘풀리며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집에서 느껴보지 못한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다. 가족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요즘, 천태종 가족 주말학교가 우리 사회에 좋은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 가족은 삶의 근간이며 건강한 가정생활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불교학 중흥에 발벗고 나서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6월 28일 최종 선정된 2012년도 ‘우수학술도서’에 불서가 단 3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학술도서 선정은 학술 분야의 연구를 진흥하고 출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선정하는 사업이다. 불교계에서는 매년 10여 종에 가까운 책들이 우수학술도서 선정에 올랐다. 이 학술 분야는 단순히 불교학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철학, 문학, 사회과학 등 분야 전반에서 불교와의 접점이 모색돼 왔다.

하지만 이번 우수학술도서를 보면 불교학 외 다른 분야에서 선정된 우수학술도서는 전무하다. 매년 5-7종의 인문학 전반에서의 불교도서가 채택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이번 도서를 선정할 심사위원의 평은 불교학 연구에 대한 격정까지 남긴다. 한 심사위원은 기독교계의 학술서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불교계의 학술서

적은 답보상태다.

종교계 출판 현실에서는 불교계 서적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비록 올해 해민스님과 범용 스님 등 매년 베스트셀러 책들을 배출하고는 있지만 종교 서고 대부분의 자리는 기독교 서적이 차지하고 있다. 문고에 비추면 책의 양이 차이가 나는 것은 찾는 이들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좁은 입지에도 선전하는 불교서적에서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불교를 초월해 사회 현안에 답을 제시하는 것들이란 점이다. 불교의 범주를 넘어 사회, 과학과 결합되지 않는 종교는 외면 받는 것이다. 이는 인문학분야의 불교학 서적이 없었던 아쉬움을 넘어서 하나의 과제도 다가온다. 오랜 세월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문화와 한국사 등 사회전반에 깊은 관계를 맺어온 불교학이 제자리 걸음인 것은 이제 불교학계의 또 하나의 화두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사홍연발담킵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발담킵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남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요해 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들을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양지극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양지극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